

謙齋의 淸風溪圖와 蘇山の 墨竹

李 圭 皓

謙齋의 淸風溪圖

木寬山에서 北西쪽으로 마주 보이는 육중한 黃牛가 옆으로 누워있는 듯 편평한 岩壁이 시원스럽게 펼쳐있는 仁旺山 기슭에 淸風溪라稱하는 골짜기가 있었다. 100餘年前만하여도 鬱蒼한 樹木에 玉流가 흘러 내리고 이 溪谷 左右에 連하여 樹木 사이에 亭子를 세워 선비들의 讀書閑遊한 서울의 名勝地로서 當代 墨客의 墨蹟도 적지 많이 傳來하고 있는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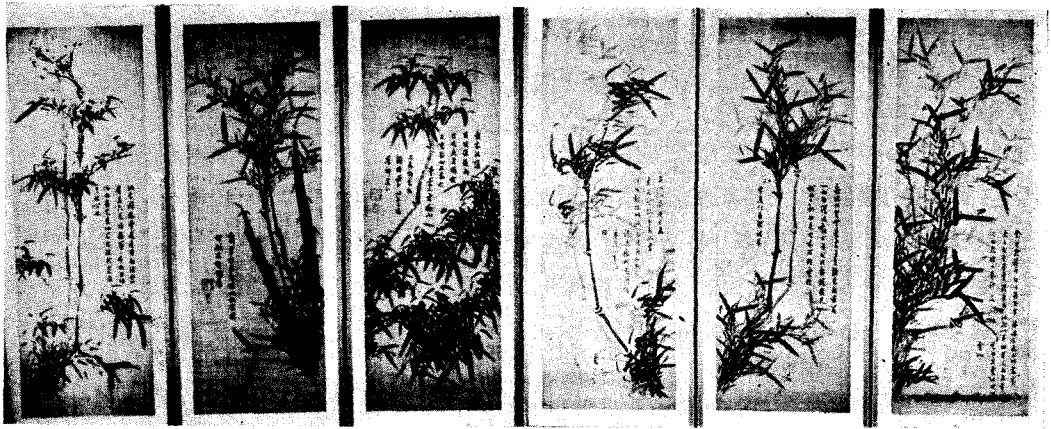
高麗大學校博物館에 所藏된 謙齋의 淸風溪圖는 서울 西北의 仁旺山의 淸風溪를 그린 것인데 洈 95cm×洈 36cm로 絹本墨彩에 若干의 淡靑綠彩를 섞었으며 墨色으로 深山幽谷의 鬱蒼한 仙境을 獨特하고 能熟한 技法으로 處理한 그의 老練한 솜씨를 보여주는 小品中에 佳作이라 할 것이다. 制作年號는 알 수 없으나 別로 褪色치 않은 것으로 보아 老年作이라 짐작이 간다.

洈面 右下端 잔디 넘어로 年輪이 오래된 수양버들 사이에 山間門이 알맞게 서 있고 그 後面 右側 上下에 宮家 모양의 瓦家가 深山幽谷에 어울리지 않게 配置되어 있으며 그 左側에는 亭亭(四角亭)을 두고 樹木과 岩石 사이로 흐르는 溪谷은 山高水長의 風致를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洈面 中間 上左側에는 마치 外金剛에서 볼 수 있는 鬼面岩과 恰似한 岩峰이 서 있어 變化無雙한 山間絶景을 말해 주는 듯 하다. 右側 仁旺山峰으로 오르는 좁다란 오솔길은 아릿 자깃한 느낌마저 주며 峰巒稠疊 淺深遠近이 自然스럽게 表現되어 있다. 洈洈히 둘러싸인 奇岩絶壁 사이사이에 꺼리낌 없이 成長한 老松들이 萬古를 이야기 하는듯 한층 風致를 돋구어 주며 洈面 最上端 上山峰 左側에서 一筆로 右下端으로 가볍게 흘러내린 陵線에 筆致는 老熟한 謙齋의 快活한 筆法을 誇示하고 있다. 右側 空間에다 淸風溪 謙齋라 墨書하고 謙齋라는 陰文方印과 元伯이라 陽刻方印의 字가 찍혀 있다. 考古美術 第四卷 第八號에 孟仁在氏가 紹介한 壯洞八景(國博所藏)의 淸風溪圖와 같은 技法이나, 다만 位置가 다르며 크기가 二倍 以上으로 큰 까닭에 더욱 謹嚴한 感을 준다.

洈面 全體에서 느끼는 壯大한 自然의 深深仙境은 보는 이로 하여금 恍惚함을 禁치 못하는 것이다. 絹本彩色이 또한 異彩롭다. 지금 紹介한 淸風溪圖 外 本 博物館에 收藏된 謙齋 作品이 十餘點이 있는데 社稷老松圖 金剛山全景圖와 더불어 貴重書畫中에 屬한다 하겠다. 世間에 傳來되는 많은 名作이 있을 것이나, 上記와 같은 佳作을 本 博物館에 收藏하고 있다는 點은 더 없이 흐뭇한 일이다. 槿城書畫徵에서 謙齋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論評하고 있는 것은 그의 洈風을 適切이 評하고 있다고 하겠다. 謙齋山水圖曰 謙齋老人 善畫山水 年八十餘筆益神 餘乞畫得一小幅 峰巒稠疊 雲煙杳漠 紙不盈數尺 而其氣勢之雄健浩潤 瑰奇幽邃 淺深遠近 槿城書畫徵 (p 114 淸風溪圖 參照)

蘇山の 墨竹

英祖 四十九年癸巳生 宋祥來는 字가 元復이며 號는 蘇山이다. 純祖 二十七年에 文科庭試에 올라



蘇山の 墨竹屏

官은 參判에 이르렀으며 能書 善竹으로 名聲있는 분이다. 그러나 多作이 아닌 탓으로 蘇山竹에 對하여 世間에서 그리 알리어 있지 못한 까닭에 이번 機會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李朝 中葉以後 許多한 墨客들의 華麗한 畫幅이 世間에 傳來하고 있으며 더욱 四君子를 主題로 한 墨蹟으로 善梅 善蘭 善菊 善竹이라 稱號한 墨客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世稱 紫霞竹하면 申緯(英祖~正祖)를 連想하게끔 高貴優雅한 墨竹으로 有名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 紹介하는 蘇山の 墨竹은 六幅으로 된 屏風次로서 韓國 特有的 거치른 麻布墨彩로 이루어 졌으며, 그 潤澤한 墨色과 힘 차고 濶達한 筆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喜悅과 勇氣를 주는 듯 더욱 墨彩의 濃淡效果를 잘 驅使한 솜씨는 蘇山の 技能을 如實히 表現한 佳作에 屬한다.

筆者의 拙見으로는 大部分의 墨畫는 絹織 또는 紙本類 等に 墨寫하는 것이 常例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편 이러한 作品이나 作家의 紹介論評 및 蒐集에 있어 一方的인 作家들의 扁見의인 것 보다 世間에 그리 알리어져 있지 않은 優秀한 作品과 作家의 批評紹介 하는데 인색하지 안했으면 한다. 보다 폭 넓은 方向으로 注力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하여 우리 民族의 固有한 藝能 技術을 널리 알리는 것이 더욱 賢明한 處事가 아닐까.

蘇山竹에 對한 特徵을 들어 簡單히 紹介하면 二立竹(六幅中四幅)으로 點節乙字上抱式으로 마치 指環(가락지)모양에 特徵은 熟達된 蘇山の 멋을 充分히 發揮한 것이며 全幅이 이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幅은 (左側부터) 上下左右로 알맞게 펼힌 幼竹葉이 靜肅한 貴家宅 閨秀와 같은 多情感을 주고 있다. 더욱 上下에 작은 點描筆로 어린 幼葉 處理가 경쾌한 느낌마저 준다. 둘째 幅도 二立竹을 中心으로 二筆 또는 三筆魚尾式 竹葉이 壯觀이며 盛育하는 竹筍이 左右에 알맞은 位置에서 힘 차게 成長하는 모습이 空白을 잘 메꾸어 있어 躍動하는 멋이 逸品이다. 셋째 幅은 二立竹은 아니나 茂盛한 夏竹이 結頂式으로 힘 차게 表現되어 있으며 넷째 幅의 風竹(二立式)은 濃淡의 效果와 풍세에 나뉘는 竹葉이 다른 幅에서 맛 볼 수 없는 快感을 준다. 다음 幅도 二立式 靜竹으로 三筆 飛雁式이다. (둘째 번과 비슷한 筆致) 끝으로 最右側 幅은 盛竹이나 下端 古枝가 切斷枯渴한 모습이 더욱 風致를 돋구어주며 豊盛한 竹林一端를 알맞게 作畫한 優秀作인 것이다. 以上 拙見으로 短評한 것이나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은것은 역시 韓國產 麻布(막베)에다 이와같이 부드럽게 墨彩

效果를 能熟한 솜씨로 멋 있게 驅使한 蘇山에 對하여 높이 讚辭를 보내고 싶다. 每幅마다 長短의 墨書가 있어 擘에도 能함을 보여주고 있다.

高貴 優雅한 紫霞竹, 專精 之妙의 岫雲竹, 刷翮 之氣의 蘇山竹이라 評하고 싶다. 警修堂集에 答宋 蘇山進士曰 我友蘇山閑且麗 何如窺玉在墻東 若論至契無成毀 末易此間置異同 久雨痕深書屋古 修竿影 落月庭空 知君妙墨能持世 天意原應老益窮이라 하였다. 以上 蘇山의 擘 모습을 讚한 것을 보면 그의 人間性의 優雅하고 高貴한 面도 엿 보인다. 藝術이란 모름지기 作家가 간직한 人間性에 依하여 左右 된다는것을 한층 強調하고 싶어 진다. 謙齋의 淸風溪圖와 더불어 蘇山의 上記한 作品을 本 博物館에 所藏하고 있다는 것을 대견스럽게 여기는 바이다.